

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

법무부는 지난 3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,451명을 결정·발표하고,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은 “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,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%(1,500명) 이상 합격”시키는 내용으로 합격자 결정방법을 확정하였다.

●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
▷ 과락 현황

- 응시자 1,665명 중 면과락자 1,472명(과락자 193명)
- 과목별 과락률이 8.5% 미만이고, 전체 과락률이 11.59%로서 과락률은 적절한 편임
- 다만, 응시인원이 적은 관계로 면과락자가 1,500명에 이르지 못함
- ※ 입학정원 2,000명 기준시 과락률 11.59%는 231명임

▷ 총점 720점 기준 설정 경위

- 성적분포,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,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
-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총점 720점 이상인 1,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

▷ 성별 합격자 비율

- 남자 : 856명(58.99%), 여자 : 595명(41.01%)
학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
- 법학 전공자 : 552명(38.04%), 비전공자 : 899명(61.96%)
- ※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707명 중 남자는 443명(62.66%), 여자는 264명(37.34%)이고, 법학 전공자는 574명(81.19%), 비전공자는 133명(18.81%)임